

반복질문이 허위자백에 미치는 영향

백승경 김재휘
중앙경찰학교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암시적 질문 유형 중 하나인 반복질문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허위의 인지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조작된 실험의 내용은 참여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 컴퓨터 오류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컴퓨터 오류는 사전 조작된 것으로 참여자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오류가 발생한 후 참여자들은 그들이 컴퓨터 오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반복처치는 참여자들의 응답 후 동일질문을 총 3회 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반복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전부 녹음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질문이 반복될수록 컴퓨터 오류에 대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참여자들의 반응성이 증가하였고, 1회 반복 질문에 비해 3회 반복 질문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빈도가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복질문의 허위자백 유도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반복질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시적 질문유형에 따른 효과를 비교 분석할 것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암시적 자극의 효과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암시적 질문, 반복질문, 암시성, 신문, 허위자백

1992년 서울의 모 여관에서 목이 졸려 숨진 여성이 발견된다. 그녀를 가장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고,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던 K순경은 곧바로 자신의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여타 그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심증을 확신한 수사관들의 반복적인 신문에 의하여 그는 자백을 하게 되고,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처음에 그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지만, 잠을 자지 못한 채 진행된 조사에 지치고 선처를 보장하는 동료 조사관의 회유에 빠져 범행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검찰에서부터 그는 자백을 부인하기 시작하

였고, 1993년 말, 다른 죄명으로 우연히 검거된 S군이 진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K순경의 자백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지게 된다(김병준, 2003).

2005년 1월 16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는 '자백 감형(plea bargaining)'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일간지의 사설에서는 이를 '대법원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등 피의자의 형사절차상 인권을 강조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과거에 비해 수사 환경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려는 검찰의 움직임이라고 논하고 있다¹⁾. 자백감 형이란 문자 그대로 용의자가 자백을 하였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을 감하여 주는 것으로, 검찰의 '신속한 사건 해결'이라는 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칫 자백의 남용, 즉 신문과정의 순간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무고한 용의자의 자백을 증가시켜 오히려 사법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에서 용의자의 자백진술은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영미와 같은 사법체계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유, 무죄 판결은 자백 증거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Kassin, Goldstein, & Savitsky, 2003), 신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하고, 실제적 진실발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백만큼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없는 것(김종열, 1995)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만큼 자백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수사관들의 노력이 종용되며, 자백중심주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 재판제의 자백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화성사건에 이은 21세기 최대의 부유층 노인 및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역시 범인의 자백에 의존하여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체계의 자백의존도에 대한 실례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진범을 자백시키는 조사과정의 압력이 무고한 사람의 자백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고한 사람을 자백시키는 압력은 진범을 자백시키는 압력보다 훨씬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통념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浜田 壽美男, 2003).

대중매체를 통한 시사 프로그램이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범죄 관련 드라마에서 우리는 종종 피의자가 자백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사흘만의 조사에 현장 검증까지 마친 피의자가 공판에서 자백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유인즉, 경찰단계의 수사과정에서 자백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가 공판에서 처벌이 구형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냥 처벌 받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자백을 반복하는 것이다. 또는 신문당시 '관대한' 수사관들의 도움에 기억나지 않던 범죄행위가 기억나 자

백하였다가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공판과정의 변호 및 증거를 통해 자백을 반복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해 자백증거의 순수성 및 신뢰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신속한 사건해결이 우선인 수사현실과 용의자의 인권, 사법절차 보호 운운하는 형사사법체계의 폐쇄적인 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신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하고, 인권수호와 사법절차의 보호를 원한다면 사법체계를 개방하여 이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의 일환으로 용의자 자백증거의 순수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의자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자백을 하고, 또 반복하기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백과 허위자백의 개념 및 이유

형사소송법상 자백이란 자기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건, 기소 전의 피의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건, 또 범행 혐의를 받기 전에 행한 것이건, 범행 발각 후에 행한 것이건 모두 자백임에는 다름이 없다. 그리고 구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면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진술은 어디에서 누구에 대하여 행하여졌는지 상관없이, 상대방이 없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백으로 볼 수 있다(이재상, 1997).

자백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Gudjonsson과 Bownes(1992)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용의자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로 인해 자백한다. 자신의 범죄를 정신적 또는 스트레스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용의자는 범죄의 원인이 사회 또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백하려는 욕구를 크게 가질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된 현 상황 혹은 구속 수사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나 조사과정에 대한 공포(Gudjonsson & Petursson, 1991)로 자백하기도 하며, 주변 지인(知人)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나(Kassin & Wrightsman, 1985),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지(Bordens, 1984; Bordens & Bassett, 1985) 등이 용의

1) 2005. 1. 17, 중앙일보 시론

자의 자백을 유발하기도 한다. 반대로 자백을 하지 않는 용의자의 이유도 다양하다. 미래의 처벌이 두렵거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한 이유와, 감옥에 가거나 직업과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일상으로부터 격리되는 현실적인 처벌과 자아 존중감의 상실 같은 자기개념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인 결과 때문에 자백하기를 주저하는 범죄자가 있다.

유죄인 용의자의 자백 이유는 비교적 명백하다. 그리고 납득하기 쉽다. 그러나 무고한 용의자의 자백인 경우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신체적·물리적 위협이나, 지인(知人)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혹은 병리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무고한 용의자의 자백을 ‘허위자백’이라고 하며, 허위자백은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Gudjonsson, 2003b).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내리면, 자백을 하길 바라는 요구에 용의자가 반응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위조되거나 또는 실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자백이다(Ofshe,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의 두 개념을 절충한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실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기억에 없는 범행을 진술할 경우’ 허위자백이라고 명명코자 한다.

앞선 사례에서 비교할 수 있듯, 반복되거나 혹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허위자백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 강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자백(Coerced false confession)이 그것인데, 이는 집중적인 신문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력의 형태에 따라 구별된다(Kassin & Wrightsman, 1985).

첫째는 강제된 복종적 허위 자백(coerced-compliant false confession)으로, 외부자극으로부터 전달되는 공포와 압력에 의해 발생한다. 불쾌한 신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할 때 ‘해방(release)’과 같은 제시된 유인가를 얻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복종적인 자세로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 복종(compliance)에 의한 자백은 도구적 목적을 위한 공적인 행동 범위 안에서의 변화로 제한할 수 있는데, 당장 자백함으로써 얻는 이익(ex. 현실에서의 해방)이 죄를 인정했을 때 치러야하는 대가(ex. 처벌, 명예손실, 투옥)보다 더 크다고 믿게 될 때 발생한다.

두 번째로, 강제로 내재화되는 허위 자백(coerced-internalized false confession)이 있다. 내재화란 타인이

제시한 믿음이나 신념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내재화된 허위자백은 극도로 암시적인(suggestive) 유도신문으로 인해 무고한 용의자가 실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어 발생하게 된다. 일상으로부터 격리되어 며칠동안 이어지는 조사동안 극도의 혼란과 피곤, 불안을 느끼는 용의자는 유죄임을 확신하는 수사관에게 암시되어 실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확실하지 않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게 된다(Gudjonsson, 1991; 浜田 壽美男, 2003).

허위자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발적 의지를 비롯하여 조사실의 격리된 상황이나 신문압력 등의 신체적·환경적 압박에 의한 허위자백은 서로 다른 심리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허구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내재화하여 자백하는 내재화된 허위자백은 수사관들에 대한 복종적인 허위자백보다 자백이 발생한 당시의 신문특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피암시성 혹은 상상력, 복종경향, 기억에 대한 불신 등 심리적 특성으로 개념화(identify)하는 것이 쉽다. 또한 Gudjonsson(2003b)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재화된 허위자백은 복종적 허위자백보다 자백한 용의자들 진술의 불안정성이나, 허위자백을 유도했을 신문특성, 조사당시 현저하게 드러나는 심리적 취약성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지능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내재화된 허위자백을 한 사람들이 강요된 복종적 허위자백을 한 사람들보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보다 영리한 자들이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내재화된 허위자백은 신념체계의 가변적인 변화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상이나 암시, 유도질문과 같은 신문전략은 잘못된 신념이나 기억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사건 당시 정황이나 범행에 대한 정확한 회상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기억에 의한 잘못된 신념이 발생하는

- 2) 잘못된 신념(false belief)의 사전적 정의는 부정확한 근거에 의한 잘못된 생각(a misconception resulting from incorrect reasoning)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잘못된 신념이란 무고한 사람들의 범죄인정인 허위 자백(false confess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억에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 내재화(self-incriminating)한 결과 ‘내가 했다(I did)’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의미한다.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Gudjonsson, 2003b).

암시성과 내재화된 허위자백

내재화된 허위자백은 암시된 자백(suggested confess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내적인 피 암시성향 혹은 외부 암시에 의해 상상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인지왜곡의 논리로 설명되어 온 이 허위자백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피 암시성(suggesti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사의 암시적 자극 즉 조사관의 질문유형(interrogative questioning)이다

피 암시성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정보를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향으로(McDougall, 1908), Gudjonsson과 Clark(1986)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시성을 "격리된 사회 상호작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딱딱한 질문질차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 행동반응의 잠재적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반응에 영향을 주는 암시적 자극과 개인의 피 암시성향은 암시성을 평가하기 위한 변인이 된다. 이에 암시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암시적 자극을 제시하여 개인의 기억이나, 진술의 변화를 관찰하고 관찰결과를 토대로 암시된 정도와 개인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Gudjonsson, 1983).

암시적 자극으로 발견되어 그 영향력이 확인된 대표적인 것이 조사관의 질문방식이다. 조사관의 질문방식은 태도나 행동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암시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Taylor, Peplau, & Sears, 2003), 유도 질문이나 부정적 피드백, 반복질문은 기억의 왜곡 및 허위사실의 생성, 그리고 허위사실을 내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Loftus, 1979; Register & Kihlstrom, 1988).

조사관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유도질문에 비해 단순한 사실을 반복하는 반복질문(repeated question)은 유도 질문에 비해 허위사실을 암시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는데, Endres(1997)에 의하면 반복되는 질문은 정교함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덜 효과적인 암시적 자

극은 아니다. Moston(1987)에 의하면 일반적인 대화 규칙에 의해 질문의 반복은 초기 반응이 어떤 식으로든 불충분함을 암시하는 것이고 반응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요구로 받아들여져 대화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유도적인 내용이나 의도 없이도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암시적 자극이 될 수 있다.

반복질문의 영향력은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질문자에 대한 일시적 복종을 유발하거나, 사람들의 자기 기억에 대한 불신 혹은 불확실함을 유도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질문에서 자기 반응의 불충분함을 암시하는 질문자의 의도를 추론하고 그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반응을 수정하는 경우, 이는 일시적으로 질문자에게 복종한 자각 있는 반응이다. 그러나 질문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은 동일해도 그것을 실제 사실화하여 자신의 반응에 대한 불신과 자기 기억의 불확실함을 형성한다면, 이는 잘못된 사고와 반응을 동반하는 잘못된 자각의 내재화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반복질문의 영향력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암시가능성이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게 지각되는 사람에 의할 경우 더 높아지고(Gelman, Meck, & Merkin, 1986; McGarrigle & Donaldson, 1974; Poole & White, 1991), 일상으로부터 떨어진 낮은 상황에서 보다 쉬워진다(Gudjonsson, 1992)는 논리에 기준해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그러나 반복질문이 암시적 질문유형으로서 반응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하여 확인된 바는 없으며, 오로지 분명한 것은 Register와 Kihlstrom(1988)의 암시성에 대한 연구에서 반복질문이나 중립적인 피드백도 사람들의 기억이나 진술에 대한 불명확한 부정적 피드백의 형태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복질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도질문과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부정적 역할이 검증되어 온 것에 비해 동일 질문의 반복형태인 반복질문에 대한 연구는,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바를 찾기 힘들다. 또한 그 영향력이 질문자의 암시유도를 자각한 사람들의 복종에 의한 결과인지 혹은 암시적 기대사안을 자각하지 못한 질문자의 유도나 의도가 암시되어 내재화된 결과인지 불분명하다. 그 영향력이 다른 질문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으나, 일상에서 문제의식 없

이 쉽게 사용되고, 사용되는 빈도가 잦다면 영향력이 미미하게라도 존재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가합논리에 의해 그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 상황에서 반복질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반복질문에 의한 반응의 신뢰성 및 위험성을 제고하여 암시적 질문 유형의 허위자백 유도가능성을 밝히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C 대학의 남녀 대학생 50명(남성 24명,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계절학과 교양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무선 표집 되었다.

연구 절차

실험장소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 상황의 반복질문을 통한 자백의 왜곡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경찰서의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과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비교적 조용한 곳을 선택하기 위하여 실험장소는 일반 강의실로부터 독립되어 떨어져 있고, 비교적 폐쇄적인 심리실험실을 이용하였다. 실험실은 단층으로 격리되어 있어 제 3자의 출입으로 인한 오염이나 기타 강의실등과 같은 친숙한 분위기로 인한 오류 발생 위험성이 낮았으며, 더욱이 실험 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폐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이공계 학생들로 심리 실험실 방문은 처음이었다.

실험절차 및 변인 조작

본 실험은 남자 대학원생의 보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사전 약속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심리실험실에 도착한 참여자는 한 명씩, 실험보조자가 기다리고 있는 실험실로 안내되었다. 실험은 아무도 없는 실험실 내에서 보조 진행자와 참여자의 1 대 1 대응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보조자는 참여자가 실험실에 들어서면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안내하고 본 실험이 인지실험인 척 허위 설명을 하였다. 간단한 인

지평가실험이라고 허위 소개된 실험은 모니터 위쪽으로 지나가는 글자를 타이핑하는 것이었다. 글자가 지나가는 속도는 사전 조사를 통하여 일반 대학생의 타자실력으로, 지나가는 글자를 모두 놓치지 않고 칠 수 있는 정도의 분당 120타의 속도로 조작하였다.

범행을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이 존재하는 실제 신문 상황과의 심리적 유사성을 조작하기 위하여 실험보조자는 ‘숫자 키를 누르면 컴퓨터 오류가 발생하여 이전까지의 실험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사전주의를 주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실험의 중대성을 주지시켜 행동의 신중함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설명을 마치고 준비가 되면 모니터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실험을 시작하도록 참여자에게 지시하고 실험보조자는 타이핑이 끝나면 알려달라는 요청을 한 뒤 참여자와 등을 맞대는 위치의 다른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는 실험자가 자신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라는 추론에 의한 참여자들의 오 반응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여자가 타이핑을 시작하면 얼마 후 컴퓨터는 사전 조작된 시간에 자동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었다. 에러 발생 후, 당황하며 에러사실을 알리는 참여자에게 실험보조자는 ‘숫자 키 누르셨어요?’라는 동일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대답을 듣고,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반복 변인이 처치되었으며, 한 참여자에게 두 세 번의 동일 질문이 반복되는 집단 내 설계였다.

총 4번의 질문을 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 종료 후, 참여자들은 실험의 본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실험의 목적 상 실험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부탁받았다. 전체적으로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15분에서 20분 가량이였다.

컴퓨터 오류는 참여자를 속이기 위한 사전 조작된 사건이며, 타이핑해야 할 내용에 숫자나 숫자 키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특수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여자들이 숫자 키를 누를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때문에 본 실험에서 사실진술은 ‘숫자 키를 누르지 않았다’는 것과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복 변인이 처치되기 전, 즉 실험보조자의 컴퓨터 오

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가정되는 참여자들의 응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반복질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란 컴퓨터 오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동일 질문이 1회 이상 반복된 뒤 '숫자 키를 눌렀다'고 응답하는 경우와, '내가 그랬다'고 잘못에 대해 시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반복질문이란 컴퓨터 오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동일 질문을 각 참여자에게 3회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보조자의 1회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은 반복이 치치지 않은 '처치 전 반응'으로 설정하고, 2회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반복 1회 치치 반응', 3회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반복 2회 치치 반응', 4회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반복 3회 치치 반응'으로 조작하여, 측정될 참여자의 반응은 반복변인 치치에 대한 반응 3개와 처치 전 반응 1개로 분류한다.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참여자들은 실험자가 반복질문 하였을 경우 느낌과, 실험당시 자신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질문지를 통해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분석방법

실험결과 분석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이 끝난 후 질문지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사전에 본 실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참여자들은 실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당시에 실험의 다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실험의 본 목적을 알지 못한 참여자들은 컴퓨터의 갑작스런 오류발생에 매우 당황하였고, 실험에 관여하기 시작한 실험자의 행동은 단지 컴퓨터 오류를 고치기 위한 행동으로만 이해하였다.

실험상황에서 참여자들의 반응은 전부 녹음되어 기록되었다.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여자가 잘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실험자의 반복질문에 참여자의 대답은 '응답1(비 치치 집단)', '응답2(반복 1회 치치)', '응답3(반복 2회 치치)', '응답4(반복 3회 치치)'로 명명되었고 양적분석을 위하여 각 응답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경우는 1,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할 경우는 2, 그리고 잘못 누른 키를 언급하거나, 자기가 잘못 눌렀을

가능성을 시인하는 경우는 3으로 축약하여 코딩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반응은 3명의 평가자 (Potter & Levine-Donnerstein, 1999)에 의하여 측정되었고, 관찰자간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켄달의 일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켄달의 일치도 계수는 유의도 수준 .000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W_{(1,3)}=0.936, p<.001$), 참여자들의 응답에 대한 평가자들의 측정치는 매우 높게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응답은 종합 분석되었다.

실험 후 반응 분석

잘못 시인은 실험자의 반복질문 의도를 추론한 참여자의 복종적인 고의에 의한 반응이거나 혹은 고의 없는 실제 자기 기억의 불신 또는 불확실성에 의한 반응일 수 있다. 때문에, 실험이 끝난 후 반응에 대한 이유를 살피기 위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종속변인인 '숫자 키를 눌렀다'와 '내가 그랬다'라는 대답은 복종적 고의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 및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반복질문이 반응에 미치는 효과

질문의 반복 유무에 따른 참여자들의 진술변화를 살펴 보았다. 처치를 가하기 전, 즉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직후 참여자들의 잘못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50명의 참여자 중 전체 42명(84%)의 참여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잘못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였고, 단지 1명(2%)의 참여자만이 잘못 했을 가능성을 시인하였다. 나머지 7명(14%)의 참여자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빈도표로 요약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참여자 응답 빈도 단위: 명(%)

	응답 내용			전 체	X ²
	아니오	네	모르겠어요		
"숫자 키 누르셨어요?"	42(84)	1(2)	7(14)	50(100)	58.840***

*** $p<.001$

표 2. 잘못에 대한 질문 반복에 따른 참여자 응답 빈도 분포
단위 : 명 (%)

진술내용	통제집단		실험집단	
	반복 없음	반복1	반복2	반복3
예	1 (2)	2 (4)	5(10)	12(24)
아니오	42(84)	45(90)	37(74)	33(66)
모름	7(14)	3(6)	8(16)	5(10)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을 알 수 있다($X^2=58.840$, $df=2$, $p=.000$). 그러나 이와 같은 응답은 질문이 반복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컴퓨터 오류를 발생시킨 잘못을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였던 참여자들의 부정응답은 질문이 반복되면서 감소하였고, 잘못했다고 시인하였던 긍정응답은 증가하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복되지 않은 통제집단을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은 응답 분포는 반복 2회 이상의 실험집단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았다. 즉, 2회 이상의 반복을 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는 다른 응답분포를 가졌는데, 각 집단별 분포 차이검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변화가 있었던 부정응답과 긍정응답의 단계별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별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질문이 반복되면서 나타난 부정응답의 감소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응답의 증가는 그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14.800$, $df=2$, $p=.002$).

표 3. 질문 반복에 따른 참여자 응답 빈도 분포 차이 검증 응답전체별) 단위 : X^2

	실험집단		
	반복1	반복2	반복3
통제집단 (반복없음)	3.124	16.738 ***	86.896 ***

$df=2$, *** $p=.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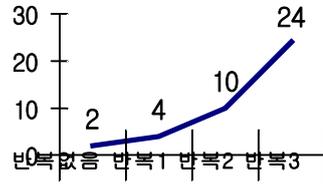


그림 1. 반복횟수에 따른 허위자백 비율

그림 1. 반복횟수에 따른 허위자백 비율

긍정응답의 빈도가 반복 몇 회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횟수에 따른 응답빈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3회 질문이 반복됐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긍정응답이 1회의 긍정응답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X^2=9.308$, $df=1$, $p<.002$), 3회 질문이 반복됐을 때 긍정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반복질문에 대한 참여자 반응 및 응답변경 이유 분석

응답의 변화에 미친 반복질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복질문에 대한 피험자들의 사전, 사후 느낌 및 사고를 개방형으로 기술토록 한 질문지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처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총 15명으로 30.6%를 차지하였고, ‘당황했다’고 대답한 참여자는 1명으로 2.4%를 차지하였다. 이후 반복되는 질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응답한 피험자는 16명으로 총 32.7%를 차지하였고, 이는 실제 실험 상황에서 보인 반응(24%)보다 높은 수치였다. ‘억울하다’와 같이 반복되는 질문에 걱정하거나 짜증과 같이 감정적인 대응을 보인 피험자도 4명으로 8.2%를 차지하였다.

이외 ‘실험자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다.’ ‘억울했다.’고 반응하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내가 컴퓨터를 고장 나게 만든 것 같으니) 컴퓨터를 고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가중되었다.’, ‘미안한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6.1%)’ 라고 응답하는 등 도덕적 책임감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표 4).

표 4. 집단별 반복 전-후의 사고 내용 분석

반복 전 명(%)		반복 후 명(%)	
문: 컴퓨터의 오류가 발생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문: 실험자의 질문이 반복되면서 달라진 생각이나 느낌은?	
내 잘못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4(8.2)	잘못 누른 것이 없을까 다시 생각해 봤다.	16(32.7)
당황스럽고 내 잘못 같기도 하고..	4(8.2)	당황스럽다. 미안한 느낌..	7(14.3)
당황스러웠다.	11(22.4)	잘못 만진 거 없는데 억울 ..	4(8.2)
컴퓨터 문제	6(12.2)	절대 내 잘못 아닌데..	2(4.1)
의도된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했다	8(16.3)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9(18.4)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15(30.6)	잘못 누른 것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죠?	8(16.3)

표 5. 컴퓨터 오류에 대한 잘못 부정에서 긍정으로 응답 수정한 참여자들의 반응 분석

반응 내용	명(%)
자꾸 물어보니 정말 내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8(66.7)
내가 실험을 망친 것 같은 미안한 마음에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16.7)
오류가 발생해 당황했다. 그리고 그냥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물어보아 그냥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16.7)

컴퓨터 오류에 대한 잘못을 부정하다가 질문이 반복된 후 잘못을 시인한 참여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내 잘못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도 실험자가 자꾸 질문해 행동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고 결국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고 8명의 참여자가 응답하였다. 그 외 2명의 참여자는 오류가 발생하자마자 ‘내가 실험을 망쳤다.’라는 미안한 마음에 잘못을 시인하게 되었고, 나머지 2명의 참여자는 처음부터 ‘혹시 나의 잘못인가?’라고 의심하여 ‘숨겨야겠다고 생각 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질문자가 재차 질문을 반복하자 ‘그냥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잘못을 시인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5).

허위자백 사례 분석

컴퓨터 오류에 대한 실수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례를 내용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금지된 숫자 키를 눌렀다고 인정한 집단과, 둘째, 숫자 키를 눌렀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도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한 집단이다. 숫자 키를 누른 것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며, 잘못에 대한 강한 부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행동에 대한 확신을 못한 채, 자신이 잘못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3번째 반복질문에 잘못을 시인한 경우이다.

사례 1.

실험자: 숫자 키 누르셨어요?
 참여자: 잘 모르겠는데요.
 실험자: 뭐 잘못 누르신 것 아니에요?
 참여자: 어쩐 그랬을지도 몰라요.만 건 저장이 안 되어 있어요?
 실험자: 숫자 키 누르신 거 아니에요?
 참여자: 눌렀다면 아마 ‘7’을 눌렀을 거예요 여태까지 한 사람들이 다 저장되어 있죠?

위의 사례에서 참여자는 ‘숫자 키를 눌렀나’ 라는 실험자의 첫 번째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즉 동일 질문이 1회 반복되자 눌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결국 세 번째 질문, 즉 반복 2회째에 ‘7’을 눌렀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행동 및 기억의

불확실성을 암시하는 가정법 형태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실험 전에 주의를 들은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례 2.

실험자: 숫자 키 누르셨어요?

참여자: 아는데... (Bk Sp키를 가리키며) 이것만 만졌는데 지우려고... 그것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험자: 뭐 잘못 누르신 것 아니에요?

참여자: 정말 아는데... 아~ (난감해하며)

실험자: 숫자 키 누르신 거 아니에요?

참여자: 음... (다시 한번 Bk Sp키를 가리키며) 이걸 만졌는데... 이 키("!"키를 가리키며)를 건들다 잘못 만졌나? 그랬나... (본문에) 숫자 키 없었잖아요? 제가 뭐 잘못 만졌나 봐요... 아~ 어떡해.. 그랬나? 본데... 어!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떡해요?

위 사례의 참여자는 숫자 키를 눌렀을 가능성을 물어 보는 실험자의 첫 번째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 질문이 1회 반복되었을 때에도 잘못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전 응답에 비해 자신감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참여자는 3번째 질문, 즉 반복 2회째에 망설이다가 본인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가능성을 시인하는 다소 혼란스러운 진술형태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 오류에 대한 '자신 탓'을 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례 모두 실험자의 첫 번째 질문에는 부정 응답을 하고 있다. 질문이 반복되면서 잘못 눌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확실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숫자 키는 아니더라도 'shift' 키나 'alt'와 같은 다른 키를 눌러 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의 탓'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질문의 반복이 사람들의 기억 및 진술에 주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신문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한 실험설계는 다음과 같다. 아무도 없는 실험실에 안내된 참여자들은 인지실험이라고 소개된 허위

실험을 실시하였고, 허위로 소개된 실험은 모니터 상으로 지나가는 글자를 타이핑 하는 것이었다. 현재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숫자 키를 누르면 이전 실험 자료가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숫자 키를 누르지 말아달라는 실험보조자의 주의를 듣고 타이핑을 시작한 참여자들은 사전 조작된 시간에 자동으로 에러발생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게 된다. 이때 실험보조자는 참여자가 숫자 키를 눌러 컴퓨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측정하고자 한 중속치는 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정 응답하였던 참여자들의 진술이 동일질문이 반복되면서 변하는 양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잘못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참여자들은 모두 42명(84%)이었고, 잘못을 시인한 참여자는 단지 1명(2%)뿐이었다. 그러나 재차 동일 질문을 반복하자 잘못을 부정하던 참여자들의 비율은 감소하여 전체 33명(66%)이었고, 잘못을 시인한 참여자들의 비율은 높게 증가하여 12명(24%)이었다. 처음 질문에 잘못을 시인한 참여자는 단지 1명(2%)이었다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매우 큰 변화이다.

잘못을 부정하다가 시인한 참여자들의 경우, '자꾸 물어보니 정말 내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표 5)'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 유도적인 내용이나 의도 없이 단지 동일 질문의 반복만으로도 사람들의 반응 및 행동을 암시할 수 있다는 기존 가설(Moston, 1987)을 지지한다. 참여자들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 듯 가정법 형태의 잘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자신 탓'을 하고 있는데(사례 1, 2) 반복되는 질문은 반응에 대한 불충분함, 즉 행동에 대한 불확실함을 유발한다는 기존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Poole & White, 1991). 반복되는 질문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고 질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상하의 지위가 명확한 실험실 상황의 위치지각에 의한 의도적 복종행동이 유발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이전 사고가 변하고 잘못된 기억 및 반응이 암시된 것이다. Milgram(1974)의 권위에의 복종 실험³⁾에서 사람들

3) Milgram(1974)은 권위가 사람들의 복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허위 전기쇼크 실험을 실시하였다. 제 2 참여

은 비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한 명령에도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연구자는 실험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참여자들의 복종적 행동은 실험자와 피험자라는 사이에서 발전된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대부분 피험자들은 실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느꼈으며, 불복종은 실험을 망치고 실험자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보고한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지각되는 지위는 사람들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실험의 참여자들 진술에서 “자기 때문에 실험을 망칠까봐” 혹은 “자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고장났을까봐”, “실험자가 난처해질까 봐.”라는 기억에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눌렀을 키를 찾으려는 복종적 형태의 반응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반복질문이 암시된 반응자책을 유발하기보다, 질문자의 질문의도를 추론한 참여자들의 지위 지각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단순히 지위 지각에 의한 실험자에 대한 참여자들의 복종이나 동조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실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전 주의를 들었다. Milgram의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실험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시, 실험이 망칠까봐 복종행동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본 실험 상황은 행동을 하였다가 잘못하여 이미 실험을 망쳤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험자에 대한 지위 지각과 복종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에러가 발생하기까지 실험자는 참여자와 등을 맞대어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었고, 참여자의 행동은 참여자 본인만이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실험자가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 내 행동을 의심한다는 추론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강압이 없이 상대의 의도를 유추해서 스스로 행동하였다면 이것은 복

종이나 동조와는 다른 외부 자극에 암시된 내재화된 행동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컴퓨터 오류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 참여자들의 약 67%는 실험자의 의도를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심지어는 잘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가정을 제시하며 진술하고 있다.

Gudjonsson(2003b)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재화된 허위자백은 복종적 허위자백보다 자백한 용의자들 진술의 불안정성이나, 허위자백을 유도했을 신문특성, 조사당시 현저하게 드러나는 심리적 취약성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기억에 대한 불신 등 심리적 특성으로 개념화(identify)하는 것이 쉽다. 본 연구의 실험 상황은 실제 조사실에 비해 위협성이나 외부 압력이 낮게 지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함이 증가하였으며, 일부는 잘못된 사고나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표 4, 표 5).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발견된 반복질문에 의한 초기반응의 수정, 자기 기억 및 행동에 대한 불확실한 반응은 반복질문이 내재화된 허위자백을 암시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질문의 반복만으로도 사람들의 자기기억에 대한 확신을 감소시키고 자기 신념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간과될 수 있는 단순한 질문방식으로도 사람들의 진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반복 질문에 의한 암시 가능성은 주로 아동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박광배, 2002),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반복질문에 의해 암시된다는 것은 일종의 특수한 상황에서 지위에 대한 복종적 형태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고의적인 자각 없이도 유도되는 자동화된 사고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적인 면이나, 신문과정을 직접 관찰, 조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실험에서 허위 자백한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와 비교하여 다른 심리적 특성을 지닐 것이다(Gudjonsson, 2003a). 실험자가 직접 관찰한 참여자들의 진술과, 참여자가 자유로이 기술토록 한 개방형의 질문

자로 분한 실험보조자가 전기 쇼크를 받을 수 있는 실험실에 들어가 있고(물론 전기 쇼크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실험자가 명령하면 실제 참여자들은 실험실 안의 실험보조자에게 전기 쇼크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참여자들은 실험실안의 실험보조자가 그만 하라고 애원하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도 실험자가 전기쇼크를 더 주라고 하면 계속해서 전기 쇼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를 비교해보면, 참여자들은 관찰된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내 잘못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관찰된 진술의 변화가 없었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해 본 결과, 참여자 중 일부는, 내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절대로 내가 했다고 말 안할 것이다. 그랬다가 나에게 컴퓨터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진술하고 있어 허위자백을 유도하기에는 질문방식 뿐 아닌 개인적인 성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소의 상호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사회적 성격, 복종적인 성향, 높은 불안감, 낮은 지능, 낮은 자존감과 연령, 피 암시성(Baxter, Jackson, & Bain, 2003; Danielsdottir, Sigur-geirsdottir, Einarisdottir, & Haraldsson, 1993; Sigurdsson, & Gudjonsson, 1996; Gudjonsson, 2003b)과 같은 내적 요인은 외부자극과 관련하여 기억 및 진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복질문에 의한 반응 역시 개인적인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복종적인 성향을 지닌 참여자는 물론, 타인에게 잘 보이거나 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실험에 대한 완수의무 및 책임감이 높게 존재하였을 것이고, 실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참여자들은 실험이 중단된 것에 대해 당황하고 실망하는 것은 물론 미안함과 같은 죄책감이 유발됐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반복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해석을 분리하여 다양한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부자극의 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개인적 특성을 무작위 표집을 통해 통제하였을 뿐, 독립변인으로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 째, Kassir과 Kiechel(1996)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사람들의 기억 및 진술에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변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동에 대한 불확실함의 존재만 확인하였을 뿐, 그 정도와 진술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 째, 실험장소 및 상황적 제약이다. 조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장소이다. 심지어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용의자에게도 조사실은 불안과 낯설음을 야기하는, 매우 폐쇄되고 경직되어 있는 장소

이다. 상황에 따라 구금이나 재판과 같은 부정적 유인가가 뒤따르는 실제 조사실과 비교했을 때 본 실험상황은 위기감이나 경계심이 매우 낮게 지각되는 상황이다. 또한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반복질문 역시 위협정도가 매우 낮은 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얻어진 본 결과를 조사실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현 사법체계의 실정 상 이와 같은 한계는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상황의 낮은 위압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 24%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이 잘못된 기억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조사실의 위압에는 반복질문에 의한 잘못된 기억보고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제한점은 오히려 실험의 의의로 볼 수 있다.

넷 째, 조사실과 사건현장은 엄격히 분리되는 장소이다. 즉, 조사실은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는 특수한 장소이며, 사건현장은 조사실 밖의 일상 환경이다. 조사현장은 밖에서 발생한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반면에, 본 실험에서는 사건이 실험실 안에서 발생하고, 발생 직후 같은 실험실 안에서 신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제와 같이 조사실과 사건현장을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반드시 물리적이고 강제된 신문이 아니어도 허위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유도성이나 의도적인 내용 없는 질문에 암시된 기억은 충분한 상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위여부를 밝혀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암시가능성이 존재하는 자극이라면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차단하는 것이 허위자백을 예방하는데 최선책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서 증거능력 부정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한동안 사법계가 술렁인 적이 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궁극적인 취지에서 발표된 사개추위의 이와 같은 발표 안은 전국적 평검사들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과연 무엇이 옳고, 누구의 인권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 하지만 피의자들 피해자들 모두 인간이라는 점은 변함없으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 진리임에 틀림없다.

허위자백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무고한 인권 침해의 예방과 같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하나의 의의를 두

고 있는 현 사법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인식만 있고 실천은 제자리인 법정의 (law-justice) 실현에 유용한 일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권력에 의한 상대적 지위의식이 뚜렷한 현 문화에서 특히 수사관과 피의자의 상하지위가 명백히 지각되는 조사실에서 강요된 허위자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더욱이 조사과정 개방은 절대 권력인 수사관을 침해하는 것으로 터부시되어 설사 강요된 허위자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들은 유도질문과 같은 잘못된 반응이나 기억을 유발하는 신문전략에 사람들은 사건 당시 정황이나 범행에 대한 정확한 회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는’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Gudjonsson, 2003b). 본 연구는 단순한 질문의 반복만으로도 잘못된 반응을 유발하여 사람들의 진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차이점을 비롯하여 반응왜곡에 대한 이유 및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남는다. 추후 연구는 신문전략의 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암시적 자극으로서 다양한 질문기법을 비교, 연구할 것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암시적 자극의 효과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김병준 (2003). 허위자백의 심리 -K순경(1992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법심리학회 2003 춘계 국제 학술대회 논집.

김종열 (1995). 범죄자들의 범행 자백 이유에 관한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박광배 (2002). 목격자와 증인진술의 정확성 법심리학. 서울: 학지사.

이수정 (2003). 허위증언의 기제와 방지대책 법심리학의 제 문제 -아동·청소년·사법판단-. 서울: 학지사.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사회심리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함근수 (1995). 남녀 범죄자의 성격특성과 범죄행동 및 자백간의 관계(미 발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浜田 壽美男 (2003). 자백의 연구-取調해야할 사람 과 取調를 받아야할 사람의 心的 構圖, 한국 법심리학회 춘계국제심포지움 논문집, 23-27.

Baxter, J. S., & Boon, J. C. W. (2000).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 753-762.

Baxter, J. S., Jackson, M., & Bain, S. A. (2003).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 interaction between interviewees' self-esteem and interviewer sty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285-1292.

Bruck, M., Ceci S. J., & Melnyk, L. (1997). External and internal sources of variation in the creation of false reports in childre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289-316.

Ceci, S. J., & Bruck, M. (1993).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Danielsdottir, G., Sigurgeirsdottir, S., Einarsdottir, H. R., & Haraldsson, E. (1993).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in children and its relationship with memory and vocabula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499-502.

Endres, J. (1997). The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assessment. *The journal of redibility Assessment and Witness Psychology*, 1, 44-67.

Gudjonsson, G. H. (1983). Suggestibility, intelligence, memory recall and personality : an experimental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2, 35-37.

Gudjonsson, G. H. (1991). Suggestibility and compliance among alleged false confessors and resisters in criminal trial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31, 147-151.

Gudjonsson, G. H. (1992). *The Psychology of Interrogations, Confessions and Testimony*. Wiley : London.

Gudjonsson, G. H. (2003a). Psychology brings justice : the science of forensic psychology. *Criminal Behavior*

- and *Mental Health*, 13, 159-167.
- Gudjonsson, G. H. (2003b). *The Psychology of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A Handbook*. Wiley : London.
- Gudjonsson, G. H., & Clark, N. K. (1986). Suggestibility in police interrogation : a social psychological model. *Social behavior*, 1, 83-104.
- Haraldsson, E. (1985).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perceptual defensiveness and extraordinary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765-767.
- Kassin, S. M. (1997). The psychology of confession evidence. *American Psychologist*, 52, 221-233.
- Kassin, S. M., & Kiechel, K. L. (1996). The psychology of false confession : Compliance, Internalization, and confabulation.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7, 125-128.
- Kassin, S. M., & McNall, K. (1991). Police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Law and Human Behavior*, 15, 233-351.
- Kassin, S. M., & Neumann, K. (1997). On the power of confession evidence : An experimental test of the fundamental difference hypothesis. *Law and Human Behavior*, 21, 469-484.
- Kassin, S. M., & Sukel, H. (1997). Coerced confession and Jury : An experimental test of the "Harmless error" rule. *Law and Human Behavior*, 21, 27-46.
- Kassin, S. M., & Wrightsman, L. S. (1985). Confession evidence. In Kassin, S. M. & Wrightsman, L. S., eds. *The psychology of evidence and trial procedures*. London : Sage, 67-94.
- Mcloskey, M., & Zaragoza, M. (1985). Misleading postevent information and memory for event : Arguments and evidence against memory impairment hypothes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Human Learning and Memory*, 114, 1-16.
- Moston, S. (1987).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 in interview studies. *First Language*, 7, 67-78.
- Poole, D. A., & White, L. T. (1991). Effects of question repetition on the eyewitness testimony of children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975-986.
- Potter, J. W., & Levine-Donnerstein, D. (1999). Rethinking validity and reliability in content analysi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7, 258-284.
- Qusi, J. A., & Schaaf, J. M. (2002). Children's memories of experienced and nonexperienced events following repeated interview.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3, 304-338.
- Register, P. A., & Kihlstrom, J. F. (1988). Hypnosis and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549-558.
- Sigurdsson, J. F., & Gudjonsson, G. H. (1996).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lse confessor'. A study among Iceland prison inmates and juvenile offend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321-329.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 (2003). *Social Psychology and The Law, Social Psychology Eleven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Zimmermann, W. (1982). On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suggestibility assessment in younger school children(SET-S, 9-10). In Endres , J., The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a sssessment. *The Journal of Credibility Assessment and Witness Psychology*, 1, 44-67.

The Effect of Repeated Questions on False Confession

Seungkyung Baek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Jaehwi Kim

Chun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tudy whether innocent participants make false confession on their uncommitted behavior due to the repeated question, which is one of the suggestive questioning methods.

For this purpose,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the false cognition experiment by the computer simulation, and they were manipulated to experience computer errors while they were under the test.

After the computer errors occurred, the participants were repeatedly asked four time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computer errors of their own. Three-time repetition process was conducted and the response of each participant was tape recorded and analyzed carefully.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tendency toward admitting their faults on the computer errors was increased as they received more repeated questions. The effect of the repeated ques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the third repeated question - The frequency of participants admitting their faults at the third repeated question was over six times higher than that of at the first repeated question. This proved that the repeated question has an influence over the suggestibility of false confession.

This results suggest that future study should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for various suggestive questioning types including the repeated question and individual trait.

Key words : Suggestive questions, Repeated questions, Suggestibility, Interrogation, False confession.

원고접수 : 2005년 6월 11일

심사통과 : 2005년 7월 4일